

12 비전공자에게 권하는 전공 도서④ 『화인열전』



1984년 국보 제216호로 지정된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한여름 소나기가 지나간 뒤 비에 젖은 인왕산 바위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화인(畫人)의 생을 통해 본 그림으로 한국화의 매력에 빠지다

나 형 민
미술학부 교수



대학생들에게 ‘서양화가 이름 열 명만 써보시겠어요?’하고 묻는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루벤스’, ‘렘브란트’, ‘마네’, ‘모네’, ‘고흐’, ‘고갱’, ‘세잔’, ‘르누아르’, ‘피카소’, ‘잭슨 폴록’, ‘앤디 워홀’ 등등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양미술사의 르네상스 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대강 십여 명의 서양화가 이름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그럼 한국화가 이름 열 명만 써보실래요?’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 아마 ‘김홍도’, ‘신윤복’ 등 서너 명의 화가 정도 이야기하고 머뭇거리게 될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매우 자명하다. 초·중등교육의 미술 시간에 한국화 또는 한

국미술에 대한 학습보다 서양화 또는 서양미술에 대한 교육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묵화, 문인화, 산수화 등등의 전통적인 한국화 속의 화목보다 수채화, 유화, 풍경화 등등 서양화에 더욱 익숙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미술이 곧 우리 미술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박물관에 박제되어 가고, 일상과는 멀어지다 보니 심지어 드라마로 인하여 신윤복은 여장남자로까지 알고 있는 ‘웃픈’ 현실도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한국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위한 서적으로 유홍준 선생의 『화인열전』을 추천한다. 열전(列傳)이란 여러 사람의 일생에 대한 전기(傳記)를 차례로 나열한 것으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가들에 대한 전기책인데, ‘화가(畫家)’라는 직업명보다 ‘화인(畫人)’이라는 명칭을 통해 그들의 인간적 삶을 더욱 드러내고자 한 것 같다. 그래서 서양에는 예술적 열정으로

자신의 귀를 자른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 1890)’가 있었다면 한국에는 화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눈을 찔른 ‘호생관(毫生館) 최북(崔北, 1712~1786?)’이 있었고, 말년에 아름다운 빛의 <수련> 연작을 선보인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가 있었다면 우리나라 산전의 진정한 미학을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를 통해 드러내며 말년에 역작인 <인왕제색도(仁王齋色圖)>를 그린 ‘겸재(謙齋) 정선(鄭敼, 1676~1759)’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특히, 이 책 속에 등장하는 한국 화가들은 조선시대 문화예술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다.

『화인열전』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인열전1』의 부제는 ‘네 비록 한쟁이라 불릴지라도’인데 김명국, 윤두서, 조영철, 정선까지 총 네 명의 화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고, 『화인열전2』의 부제는 ‘고독

의 나날 속에도 붓을 놓지 않고’로 심사정, 이인상, 최북, 김홍도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소개된 작가 여덟 사람 외에 조선 초기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의 ‘안견(安堅)’과 말기 <세한도(歲寒圖)>의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영화 <취화선>에 등장하는 오원(吾園) 장승업(張承業) 정도를 더 포함하면 열추 열 명의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한국 화가로 기억될 것이다. 아쉽게도 회화 작품은 보존상의 문제로 고려시대 이전의 화가들에 대한 사료 또는 실물 작품은 매우 부재하다. 따라서 주로 알려진 한국 화가는 조선시대 그중에서도 조선 중·후기의 화가들이 다수를 이룬다.

덧붙여서 한국미술, 한국화에 대하여 더욱 알고 싶다면 안휘준 선생의 『한국회화사』를 추천하고 싶다. 다만 대표적인 한국회화사 개론서임에도 너무 전공 서적이고 다소 딱딱한 한문(漢文) 문체와 생소한 전문용어로 인하여 일반 학생들이 흘

로 접하기에는 난해하고 자칫 독서의 인내를 시험받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은 접하기 용이하면서도 단순히 미술사라는 역사책이 아니라 조선시대 화가들의 예술적 성취를 위한 인생의 노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미술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화인열전』을 먼저 소개한다.

동양화론에서는 ‘인격(人格)이 곧 화격(畫格)’이라고 하였다. 즉 화가의 인성, 인품이 작품의 이면에 자연스럽게 담긴다는 뜻이다. 따라서 화가의 삶에 대해 인지할 때 더욱 그 작품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유홍준 선생은 ‘미술사의 정수는 예술가의 전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화인열전』의 부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쟁이’라는 멸시에도 예술가로서의 굳건한 자긍심을 지키고 ‘고독’과도 싸우면서 빛나는 예술혼을 펼쳤던 조선시대 화인들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 그런 고단한 삶은 지금의 예술가에게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아마 일반인들의 예술에 대한 무지와 편견, 특히 우리 미술에 대한 무관심이 아닐는지 생각해본다.